

Industry Watch

## 국내 그린스탁(Green Stock) 성과와 시사점

2021. 06. 23.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국내 그린 비즈니스 기업(Green Stock)들로 구성된 'WGSI(WFRI Green Stock Index)'를 산출하고 최근의 주가 performance와 과잉투자(Bubble) 여부를 점검
  - 국내 Green Stock은 국내 43개 클린 에너지 펀드에 담긴 641개 종목 중 그린 비즈니스(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연관 매출액이 10% 이상인 92개 종목으로 선정
- 92개 기업의 시가총액('20.1월=100)을 이용하여 구성한 WGSI는 '21.5월 185.4로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하여, 같은 기간 KOSPI(51.2%) 대비 Outperform
-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과 나스닥 상승폭 대비 완만하다는 점에서 버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최대 상승폭 비교('21년vs.닷컴버블): WGSI 105.9% vs. 코스닥 368.4%, 나스닥 441.2%
- 매출 규모별 성과와 과잉투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가 상승률은 유사하나 PER에서는 대규모 투자 여력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높은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그룹\*은 재무안정성이 취약하여 부채상환능력 훼손 우려가 상존
  -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20개 기업 중 8개가 적자 상태
- 금융회사는 그린스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식가치 평가에 ESG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
  - 은행, 저축은행, 증권, 캐피탈의 경우 대출과 투자 의사결정 시, 재무적 지표 뿐만 아니라 그린 비즈니스 등 ESG 정보를 중요한 요소로 감안할 필요
  - 자산운용사는 그린뉴딜 펀드를 포함하여 ESG 펀드 출시를 확대하고, 펀드 구성 시 안정성이 높은 그린스탁 종목 편입을 우선적으로 고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번 산출된 WGSI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보완하여 지수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
  - 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금융시장 브리프」 내 WGSI 동향과 전망 part를 추가하고, 안정화 여부에 따라 WGSI 발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 종목별 거래대금 등 시장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상품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작성자: ESG-기업금융연구실 성지영 수석연구원 (02-2173-0561)

책임자: ESG-기업금융연구실 임재호 실장 (02-2173-0583)

##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Green Stock Index(WGSI)의 개요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국내 그린 비즈니스 기업(Green Stock)들로 구성된 'WGSI(WFRI Green Stock Index)'를 산출

- '20.1월 글로벌 최대 기관투자자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선언 이후 ESG 관련 민간투자 확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로 그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Green Stock에 관한 관심이 증가
  - 2020년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40.5조 달러까지 빠르게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국내 ESG 투자 규모도 34조원<sup>1)</sup>으로 5배 가까이 증대국내 Green Stock은 43개 클린 에너지 펀드에 담긴 641개 종목 중 그린 비즈니스 연관 매출액이 10% 이상\*인 기업 92개 종목으로 선정
  - 그린 비즈니스는 전기차<sup>2)</sup>, 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 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9개 섹터로 구분
    - \* 641개 종목 중 그린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39개에 불과하여, 지수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10%로 적용
- 기업 수 기준으로, 최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EV 관련 섹터(2차전지 39%, 전기차 부품 18%, 전기차 2%)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외 태양광(12%), 리사이클링(7%), 에너지 효율과 수소(6%), 풍력(4%) 순

Green Stock 섹터별 비중

구분	2차전지	EV부품	태양광	리사이클링	에너지효율	수소	풍력	전기차	기타
종목 수	39%	18%	12%	7%	6%	6%	4%	2%	6%
합산 매출액	25%	21%	4%	1%	0%	0%	0%	46%	2%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92개 종목 가운데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중견·대기업) 비중은 78.3%\*로 국내 비금융 상장기업 전체(55.4%) 대비 높게 나타남
  - \* 국내 Green Stock의 규모별 기업수는 매출액 1조원 이상 21개,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52개, 1천억원 미만 19개로 구성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펀드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전망”(2021.02.04.)

2) 현대·기아차는 2020년 전체 판매대수 345만대 중 전기차가 50.1만대(14.5%)로 전기차 섹터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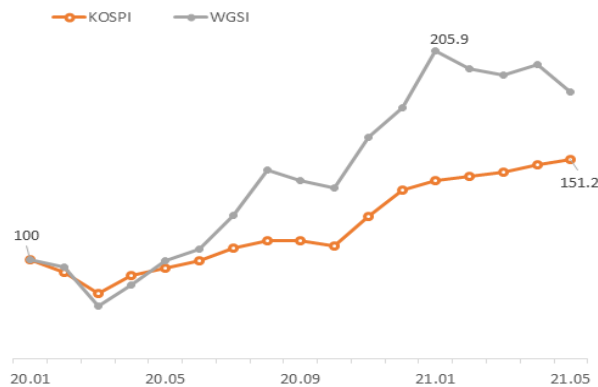
- 92개 기업의 시가총액(2020.1월=100)을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린스탁지수(WGSI, WFRI Green Stock Index)에 대한 최근의 추가 performance와 과잉투자(bubble) 여부를 점검

## 2. Green Stock의 Performance 비교

- '21.5월 WGSI는 185.4로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등

- WGSI는 지난 1월 205.9까지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하여 5월말 185.4 수준

주가지수 (KOSPI vs. WGSI)



주: 각 지수는 2020.1월=100으로 표준화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같은 기간 KOSPI 51.2%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

WGSI와 주요 지수별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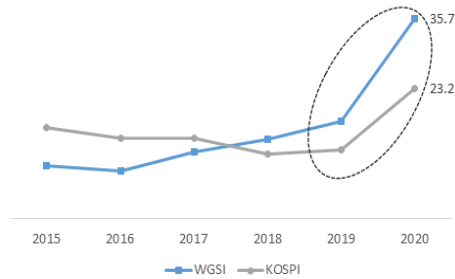
구분	WGSI	코스피
2021.5월	185.4	151.2

주: 각 지수는 2020.1월=100으로 표준화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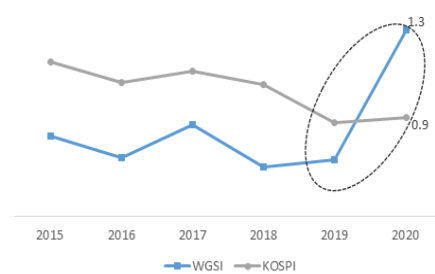
- 2020년 WGSI의 PER(시가총액÷순이익)은 35.7배로 KOSPI(23.2배)를 크게 상회하였고, PBR(시가총액÷순자산)도 1.3배로 KOSPI(0.9배)보다 높은 수준
  - 2019년(PER 17.4배, PBR 0.7배) 대비로도 큰 폭으로 상승
  - PBR의 경우, 그린 비즈니스의 특성상 과거 장기간 이어온 실적 부진으로 순자산 가치가 낮은 종목 비중이 높아 WGSI의 상승폭(0.7→1.3배)이 KOSPI(0.9배 지속)를 크게 상회

WGSJ 주가수익비율(PER)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WGSJ 주당순자산비율(PBR)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매출액 규모별\* 주가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주가 상승률은 유사하였으나 PER의 경우 1조원 이상 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매출액 1조원 이상(21개),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52개), 1천억원 미만(19개) 3개 그룹
- 2021.5월말 기준 시가총액 상승률은 매출액 1조원 이상 101%,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54%, 1천억원 미만 150%로 비슷
-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의 PER(454.1배)이 가장 높음
  - 전체 21개사 중 16개(81%)가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대기업 계열사로 아직까지 신사업을 통한 이익 실현 규모는 작으나, 향후 자본력을 기반으로 그린 비즈니스 등 ESG 투자 여력이 높다는 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결과로 판단
  - 타업종 대비 PER이 높은 전기차 부품 기업(575.4배)\*이 9개(43%)나 포함되어 있는 것도 PER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
  - \* 미래차 신소재(탄소섬유) 타이어 개발업체인 효성첨단소재의 경우, 높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PER이 8,490배로 분석대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
  - 전기차 부품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PER은 51.2배로 타 그룹을 크게 상회
-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 PER은 38.3배이고, 1천억원 미만 기업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PER이 마이너스(▲28배)를 시현

Green Stock 매출액 규모별 퍼포먼스

	매출액 1조원 이상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천억원 미만	WGSJ
시총 상승률(%) <sup>3)</sup>	101	154	150	85.4
PER(배, 2020년)	454	38	▲28	35.7
PBR(배, 2020년)	1.8	3.6	3.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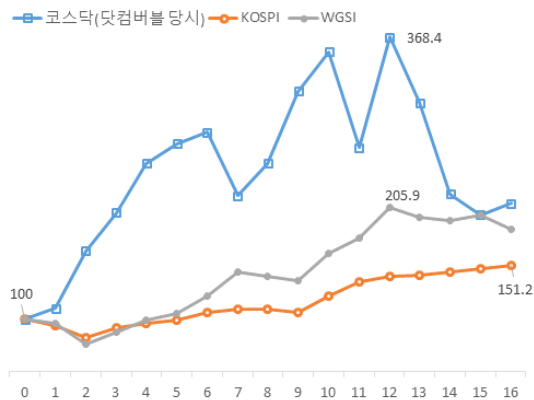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 Green Company 안정성 점검

■ 일부에서는 Green Stock의 과잉투자(Bubble)를 우려하고 있으나,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과 나스닥 상승폭 대비 완만하다는 점에서 버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WGS의 최대 상승률은 105.9%로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368.4%), 나스닥(441.2%) 상승폭을 크게 하회
- WGS PER은 35.7배로, 닷컴버블 당시 최고치가 232.1배이었음을 감안하면 순이익(실적)과 주가 간 이격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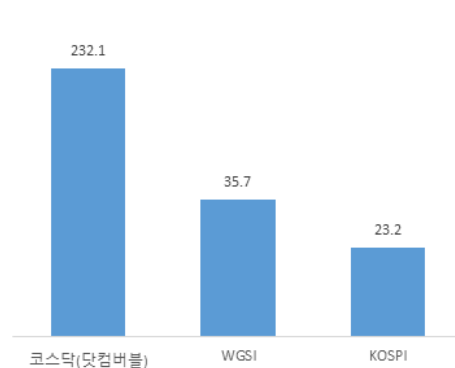
주가지수(닷컴버블 vs. WGS)



주: 월말 종가 기준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PER(닷컴버블 vs. WGS)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다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그룹의 취약한 재무안정성에는 유의할 필요

- 1천억원 미만 기업은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이 대부분으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모두 비교대상 그룹 대비 부진
  - 2020년 중 매출액(▲4.4%)과 영업이익(▲85.4%, yoy)이 모두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9년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
    - \* 영업이익증가율(yoy): 146.1%(17) → 8.3%(18) → -5.1%(19) → -85.4%(20)
  - 부채비율(66%)이 KOSPI 평균(115.4%) 대비 낮지만, 이자보상배율(0.4)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3) 시총 상승률은 기준-비교 시점 간 시총 절대값의 상승률인 반면, WGS는 신규 편입종목이 기준값에 추가됨에 따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완만함

- 20개 기업 중 8개가 적자 상태로 이 가운데 2개(유니슨 풍력발전, 대우부품 전기차 부품)가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으며, 이엠코리아(수소충전소)는 5년 연속 영업적자로 한계기업\*으로 편입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상기업 대비 부도확률이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은행)

- 매출액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재무지표가 대체로 양호
  -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16.3%와 33.1%로, 영업이익률은 10.7%로 3개 그룹 중 가장 높음
    - \*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피엔티와 솔루스첨단소재, 전기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국단자(영업이익이 각각 3,642%, 199%, 136% 상승)가 실적을 견인
  - 이자보상배율은 9.0배로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4.1배)에 비해 상환능력이 양호
- 매출액 1조원 이상 그룹은 2020년 매출액(▲4.4%)과 영업이익(▲32.4%)이 감소하여 성장성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자보상배율은 4.1배로 안정성은 높음

Green Stock 매출액 규모별 재무지표(2020년 기준)

		매출액 1조원 이상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천억원 미만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 yoy)	-4.4	16.3	-4.4
	영업이익 증가율(% , yoy)	-32.4	33.1	-85.4
수익성	영업이익률(%)	2.6	10.7	1.0
	ROE(%)	2.5	15.7	13.2
안정성	부채비율(%)	125.4	82.1	66.0
	이자보상배율(배)	4.1	9.0	0.4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개별기업 기준 재무지표를 살펴본 결과, 리사이클링과 신재생에너지 종목이 상위를 차지

- 매출액과 영업이익증가율 등 성장성에 있어서는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강세
  - 전지박을 생산하는 솔루스첨단소재, 수소연료전지 개발 업체인 두산퓨어셀, 태양광 장비업체 톱텍 등이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매출 증가세를 실현

- 수익성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리사이클링 섹터, ROE는 2차전지 업체가 우위를 보임
  - 리사이클링 기업인 코엔텍과 와이엔텍은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이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
    - \* 2016~2020년 중 폐기물 처리(매립·소각)단가는 연평균 12%(각각 15%, 9%) 상승
  - ROE는 매출 증대로 이익이 안정화(흑자전환) 단계에 들어선 2차전지 업체가 상위권을 독식
    - ※ 2차전지 매출의 38%를 차지하는 SK이노베이션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진으로 섹터 전체 수익성은 저조  
(영업이익률: 2차전지 1.1% vs. WGS 3.1%, ROE: 2차전지 2.6% vs. WGS 3.6%)
- 재무안정성은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
  -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이 양호한 상위 3개사 가운데 지엔원에너지를 제외한 티씨케이, 나노신소재, 톱텍, SNT모티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장비에서 그린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한 케이스

재무지표별 개별 종목 순위(2020년 기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종목명(섹터)		종목명(섹터)		종목명(섹터)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영업이익률(%)	ROE(%)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배)
1위	솔루스첨단소재 (2차전지)	피엔티 (2차전지)	코엔텍 (리사이클링)	솔브레인홀딩스 (2차전지)	티씨케이 (태양광)	티씨케이 (태양광)
	314.5	3,642.1	43.8	139.4	14.1	5,909
2위	듀산퓨어셀 (수소)	엠펙플러스 (2차전지)	티씨케이 (태양광)	SK머티리얼즈 (2차전지)	나노신소재 (2차전지)	SNT모티브 (전기차부품)
	108.8	266.9	35.2	30.1	15.7	1,965
3위	톱텍 (태양광)	솔루스첨단소재 (2차전지)	와이엔텍 (리사이클링)	피엔티 (2차전지)	톱텍 (태양광)	지엔원에너지 (기타)
	92.6	198.5	29.9	27.6	16.0	359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 시사점

- 국내 Green Stock(WGSI)이 KOSPI 대비 Outperform 하고 있는 것은 그린스탁으로 대표되는 ESG 투자가 유망하다는 방증
  -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버블 국면과 비교시 상승폭이 완만하고, PER도 높지 않아 과잉투자(Bubble)로 단정하기도 어려움
- 금융회사는 그린스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식가치 평가에 ESG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
  - 은행, 저축은행, 증권, 캐피탈의 경우 대출과 투자 의사결정 시,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그린 비즈니스 등 ESG 정보를 중요한 요소로 충분히 감안
  - 자산운용사는 그린뉴딜 펀드를 포함하여 ESG 펀드 출시를 확대하고, 펀드 구성 시 안정성이 높은 그린스탁 종목 편입을 우선적으로 고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번 산출된 WGSI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보완하여 지수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
  - 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금융시장 브리프」 내 WGSI 동향과 전망 part를 추가하고, 안정화 여부에 따라 WGSI 발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 종목별 거래대금 등 시장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상품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붙임1

## Economist Green Stock Index(EGSI) 개요

- Economist誌는 21.5.22일 게재된 ‘A green bubble? We dissect the investment boom’에서 Green Stock을 정의하고, 코로나 이후 주가 performance를 비교 분석
- 그린스탁 정의 및 지수구성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 ① 글로벌 Clean Energy Fund 105개 내 편입 종목을 모집단으로 선정
  - ② 모집단 중
    - i) 반도체 등 전통산업에 속한 기업 제외
    - ii) 그린 비즈니스(전기차, 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발전업 등 9개 섹터) 매출 기준(5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약 180여개를 도출
  - ③ 180여개 종목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을 기반으로 EGSI (Economist Green Stock Index) 산출
  - ④ EGSI와 S&P 간 i)주가상승률, ii)PER, iii)PBR을 비교하여 그린스탁 과잉투자 여부 평가

## 붙임2

## 국내 Green Stock 섹터별 비교

■ 국내 그린스탁 섹터별 재무지표를 검토한 결과, 리사이클링 부문이 가장 양호한 반면 2차전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

- 리사이클링 부문은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

\* 2016~2020년 중 폐기물 매립·소각 단가는 각각 연평균 15%, 9% 상승

- 리사이클링 섹터는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체\*(건설폐기물, 석유화학/자동차/중공업 폐기물 처리업 등)로 최근 ESG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폐기물처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정부가 폐기물 총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어 신규 설립과 증설이 까다로운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

- 2차전지 섹터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모두 부진

- 리튬, 코발트, 니켈 등 2차전지의 주원료인 금속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훼손

- 2차전지 섹터 매출의 38%를 차지하는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과의 소송, 배터리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이 섹터 재무지표 부진으로 연결

섹터별 주요 재무지표(2020년 기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영업이익률 (%)	ROE (%)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배)
전기차	-0.4	-20.6	2.7	3.2	154.0	7.5
태양광	-5.8	34.8	5.9	2.3	116.7	3.0
2차전지	-9.1	-62.9	1.1	2.6	111.9	1.5
리사이클링	67.3	76.5	9.4	17.1	107.0	6.0
풍력	11.7	49.8	7.3	2.3	96.5	5.6
전기차 부품	-5.5	-22.2	4.5	4.2	72.6	8.0
수소	37.5	44.4	5.0	2.5	53.9	4.2
에너지효율	15.8	47.5	8.2	1.3	46.2	6.9
기타	-1.4	24.8	5.7	11.9	131.0	3.3
WGS	-3.5	-25.3	3.1	3.6	121.7	4.6

주: 음영 셀은 각 지표별 가장 양호한 값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3

## 국내 Green Stock 종목별 재무지표(92개 기업)

구분	섹터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	ROE(%)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배)	비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30.7	-330.7	-7.5	-13.9	149.0	-7.3	대
LG화학		10.0	117.8	6.0	3.6	120.3	9.0	대
삼성SDI		11.9	45.3	5.9	4.7	61.2	9.7	대
SKC		14.4	36.5	7.1	3.8	182.3	2.2	대
SK케미칼		9.1	157.8	8.7	26.6	121.1	4.4	대
한솔테크닉스		22.9	27.5	2.7	9.4	111.9	8.1	대
SK머티리얼즈		23.7	8.9	24.5	30.1	303.9	9.4	중견
에코프로		34.8	72.3	8.7	9.2	118.0	4.8	중견
파워로직스		-16.3	-151.7	-2.8	-12.0	73.5	-25.7	중견
에코프로비엠		38.7	47.7	6.4	10.0	71.0	12.9	중견
한솔케미칼		13.8	36.7	24.5	20.9	60.6	25.4	중견
일진머티리얼즈		-2.4	8.6	9.5	5.0	26.6	20.3	중견
솔브레인		N/A	N/A	22.1	12.8	41.2	117.5	중견
SK아이이테크놀로지		78.4	55.4	26.7	7.3	64.8	14.1	중견
피엔티		21.4	3642.1	14.2	27.6	248.6	30.9	중견
엘앤에프		13.7	-119.2	0.4	-7.6	135.9	0.3	중견
코스모화학		-12.6	-195.7	1.4	-6.2	167.4	0.6	중견
솔루스첨단소재		314.5	198.5	10.5	-2.3	71.7	4.9	중견
신홍에이씨		16.9	32.0	9.5	14.1	175.6	5.7	중견
후성		5.1	-79.1	1.1	-0.6	122.3	0.5	중견
솔브레인홀딩스		-5.8	15.0	7.0	139.4	29.3	8.0	중견
코스모신소재		-16.3	-443.5	6.1	6.6	104.9	5.7	중견
필옵틱스		34.5	-112.0	0.9	4.6	239.0	1.0	중견
나라엠앤디		14.0	-21.5	0.9	1.8	168.4	1.0	중견
엠플러스		51.9	266.9	6.3	10.0	139.9	5.1	중견
천보		14.9	10.8	19.4	12.2	16.1	92.4	중견
상신이디피		16.4	113.0	12.8	11.9	122.9	10.1	중견
원익피앤이		-13.2	16.1	16.2	17.8	97.0	87.3	중견
씨아이에스		17.4	-9.6	11.8	-6.8	262.8	13.0	중견
엔에스		2.4	22.6	10.2	9.3	134.6	5.8	중소
디에이테크놀로지		-47.8	-2282.4	-25.0	-30.2	33.7	-5.3	중소
에이프로		-27.3	-89.5	2.2	1.6	26.6	3.3	중소
티에스아이		-25.0	-115.1	-1.9	-4.3	81.6	-3.8	중소
코원테크		-50.2	-97.0	1.4	2.6	28.0	5.5	중소
EG		-33.0	-534.4	-14.5	-14.1	179.0	-20.6	중소
대보마그네틱		-33.8	-126.9	-7.9	-2.7	48.2	-1.0	중소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3.7	-22.4	5.0	4.6	45.5	33.6	대
한온시스템		-3.9	-34.7	4.6	5.1	248.6	3.5	대
현대위아		-9.9	-29.4	1.1	1.5	119.0	1.3	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6.2	15.5	9.7	5.2	43.8	13.2	대
만도		-7.0	-59.4	1.6	0.8	188.9	2.0	대
성우하이텍		-12.4	-92.8	0.2	-5.0	167.2	0.1	대
효성첨단소재		-21.6	-78.4	1.4	1.8	523.6	0.7	대
현대오트모터		-0.6	8.2	5.6	10.8	91.5	22.0	대
화신		-6.8	-680.7	-1.0	-21.2	221.8	-0.8	대

구분	섹터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	ROE(%)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배)	비고
SNT모티브	전기차 부품	-3.6	0.2	9.5	7.2	43.7	1965.4	중견
엠케이전자		19.7	-12.4	12.7	8.7	116.0	9.0	중견
한국단자		3.9	135.6	9.8	7.6	28.9	355.9	중견
삼기		20.2	-146.9	-0.7	-5.8	280.9	-0.4	중견
우리산업		-9.3	-26.8	3.6	4.5	106.8	5.3	중견
대우부품		42.1	0.2	-1.3	-10.4	163.4	-1.3	중소
모바일어플라이언스		-7.0	-439.2	6.3	6.2	83.2	7.3	중소
한화솔루션	태양광	-2.8	29.4	6.5	5.1	153.7	2.9	대
OCI		-23.1	-52.3	-4.3	-10.5	86.0	-1.8	대
동진썬미켈		7.1	20.4	13.5	19.5	119.4	11.0	중견
휴켄스		-10.0	-10.4	16.0	7.2	26.1	40.5	중견
현대에너지솔루션		-11.6	-60.2	2.2	1.9	39.4	10.4	중견
에스에너지		17.5	-696.3	-2.3	-13.8	133.8	-2.1	중견
티씨케이		33.2	35.7	35.2	22.4	14.1	5908.9	중견
엘오티베콤		14.0	-504.3	2.4	2.5	40.5	3.8	중견
유니테스트		-37.7	-91.1	2.2	0.8	27.4	7.6	중견
SDN		23.0	-92.3	0.3	9.2	114.6	0.1	중소
나노신소재		-0.8	-71.5	3.0	1.8	15.7	9.0	중소
위닉스	에너지효율	-1.0	1.1	13.6	22.6	83.6	17.1	중견
토텍		92.6	-539.7	9.0	3.4	16.0	24.9	중견
KH 필룩스		-12.1	-98.0	0.0	-17.5	41.9	0.0	중견
아모그린텍		19.7	-39.5	1.4	2.8	167.8	1.6	중견
인스코비		-23.7	-120.6	-1.7	6.5	91.2	-0.5	중소
KG케미칼	리사이클링	78.2	105.9	6.6	10.3	186.8	4.0	대
인선이엔티		13.4	65.3	23.5	11.4	55.6	19.1	중견
와이엔텍		7.5	21.2	29.9	13.9	65.5	16.4	중견
티와이홀딩스		N/A	N/A	1.7	27.4	55.0	0.6	중소
코엔텍		-0.4	9.1	43.8	16.9	26.5	97.7	중소
PI첨단소재		17.0	78.6	22.9	14.7	42.8	44.7	중견
두산퓨얼셀	수소	108.8	33.6	5.6	2.8	54.2	5.3	중견
지엔씨에너지		-4.4	-24.6	4.2	0.6	34.7	19.2	중견
풍국주정		-2.8	6.0	9.5	5.9	19.0	29.4	중견
이엠코리아		-4.0	-72.1	-4.2	-2.9	123.5	-0.8	중소
에스퓨얼셀		23.8	-2.4	4.5	2.4	78.0	3.6	중소
씨에스윈드	풍력	21.2	62.3	10.1	7.6	98.6	11.4	중견
동국S&C		-7.3	-24.8	3.6	1.4	44.4	8.5	중견
씨에스베어링		0.9	-7.4	9.2	11.1	147.8	6.0	중견
유니슨		5.6	-15.1	-14.6	-30.9	239.0	-1.6	중소
현대차	전기차	-1.7	-33.6	2.3	2.5	174.2	6.6	대
기아		1.8	2.8	3.5	5.0	102.4	8.8	대
SK디스커버리	기타	-10.0	-0.6	3.8	13.6	114.9	3.8	대
SK디앤디		53.9	70.0	20.0	12.4	222.2	2.9	중견
신성이엔지		19.8	156.2	3.8	-7.2	121.2	2.4	중견
지어소프트		62.2	-7811.1	3.9	42.6	368.6	6.7	중견
디케이락		-4.3	-74.5	3.5	-0.1	60.3	5.9	중소
지엔원에너지		-15.2	-64.7	3.7	-11.9	18.4	358.9	중소

주: 비고는 매출액(2020년) 기준 1조원 이상 '대',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중견', 1천억원 미만 '중소'로 구분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